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8

#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는 백성들

(민수기 14장, 16장)

**“아이고 엉엉엉... 이제 어쩌나..  
앞으로 어떡하나... 엉엉엉.”**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소리죠!  
역시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대신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크게 실망한 백성들은 엉엉 울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그랬습니까.  
왜 이 고생을 해서 가나안의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냐구요. 엉엉엉...”**

**급기야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소! 이제라도 이집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뽑읍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죠.

**“우리가 정탐하러 간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를 만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배반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검먹지 좀 말라고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너희들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느냐.  
그런데도 저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몽땅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약해서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에 못 보냈구나.’  
> 이렇게 비웃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모세 너의 말대로 저들을 용서하겠다.  
허나, 저들이 나를 의심하고 믿지 않은 것은  
분명한 ‘죄’다.**

**“그 죄의 대가로, 너희 중 스무 살  
이상의 모든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나를 믿었으므로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광야를  
떠돌아야 한다니! 정말 무서운 벌이었어요.  
그나마 모세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고라’였죠. ‘고라’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죠.  
오직 모세와 대제사장,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고라’는 바로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누구는 레위 사람 아닌가?  
나도 대제사장, 제사장, 그까짓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왜 몇몇 사람들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거지? 안 그래?”**

**질투로와 시기로 가득한 고라는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헐담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 너무도 슬펐어요.

모세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할 뿐이었죠.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세에게 대دن다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충분히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것인가.  
고라 자네와 자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하나님 앞으로 향로를 들고 오게.  
하나님께서 누구를선택하셨는지 직접  
보여주실테니 말이야.”**

**“흥! 좋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 번 봅시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고라의 무리가 성막 앞에 모여들었어요.

조금 떨어진 한쪽 편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죠.  
모세는 다른 백성들을 성막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한 뒤 고라의 무리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내가  
내 멋대로 했다고 주장했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걸 말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서 있던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바바짐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나머지 백성들은 두려움에 도망치기 바빴어요.

허겁지겁 도망치면서 사람들은 오직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답니다!